

# ACC 첫 SF극 '대리된 존엄'... "N차 관람 권해요"

극단 '두 번째 방법' 최여림 연출  
12~13일 예술극장 극장1 첫공연  
인공지능으로 출산하는 미래배경  
인공지능 제공한 대리모 '앨리스'  
"현대사회서 훼손된 인간성 은유"

"SF 연극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먼 미래  
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, 결국 현대사회에서 흔  
히 겪는 인간성 훼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었  
죠."

12~1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(ACC) 예술극  
장에서 초연되는 SF 연극 '대리된 존엄'을 연출한  
최여림 연출은 '인간의 존엄성은 대리될 수 있는  
지'에 대해 고민했다.

이 연극은 지난해 'ACC 공연 레지던시 사업'을  
통해 연극으로 개발된 작품이다.

최 연출과 함께 극단 '두 번째 방법'에서 활동하  
는 문정연 작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구성했으며 지  
난해 쇼케이스를 통해 낭독극으로 첫선을 보인 것  
에 이어 이번에 정식 무대를 선보이게 됐다.

특히 ACC에서 공연하는 첫 SF 연극으로 화제  
를 모은다. 과학적, 합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우리  
사회의 미래를 넘어 보는 'SF 장르'는 문학과 영화  
장르에서 더욱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.

공연의 라이브성과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  
에서 미래의 상상력을 더한 가상의 이  
야기를 표현하는데 많은 한계가 존  
재하기에 연극 분야에서 SF 장르  
는 많이 다루지지 않고 있다.

이러한 매체적, 공간적 한계성을 극복한 ACC  
의 SF 시리즈로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고민과 함께  
동시대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을 해 본다.

연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인공지능으로 자녀를 갖는 것이 당연한 미래 사  
회, 돈 많은 낭만주의자의 니즈를 위해 인간의 자  
궁을 제공하는 대리모 산업의 한가운데 성실하고  
예민한 소녀 앨리스가 있다. 가장 낮은 구역 출신  
인 앨리스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 국가 최고기관인  
왕립대리모센터에 입소하고 자신이 선진국의 전  
문직 부부에게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한다.  
대리모를 쓰는 부모 모임에 가입한 아내는 부모들  
이 대리모를 함부로 취급하는 느낌을 받고 불쾌감  
을 느끼면서도 앨리스의 임신을 중지하고 더 뛰어  
난 대리모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정보에 갈등한다.  
아기와 교감하며 임신 상태를 보내던 앨리스는 무  
사히 출산하지만, 부부에게 이야기를 보내기 전 대리  
모 산업을 반대하는 테러단체가 왕립대리모센터  
를 점령하게 되는데...

연극무대에서 구현된 미래사회는 어떤 모습일  
까? 최 연출은 미래적 모습을 실제적으로 묘사하  
는 것보다 관객들 각자의 상상력을 이끌 수 있는  
요소에 집중했다.

최 연출은 "전형적인 무대가 없는 ACC 예술극  
장의 가변형 무대 특성을 어떻게 연출로 활용할 수  
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다. 비슷한 무대 환경을 찾  
아 연습하는 것이 관건이었다"면서도 "미래사회  
모습을 상상하는 것보다 관객들로 하여금 동시대  
담론을 떠올리게 하는 연출이 더 중요했다"고 말했  
다. '상추튀김'과 같은 광주를 떠올리게 하는 포인  
트도 재미 요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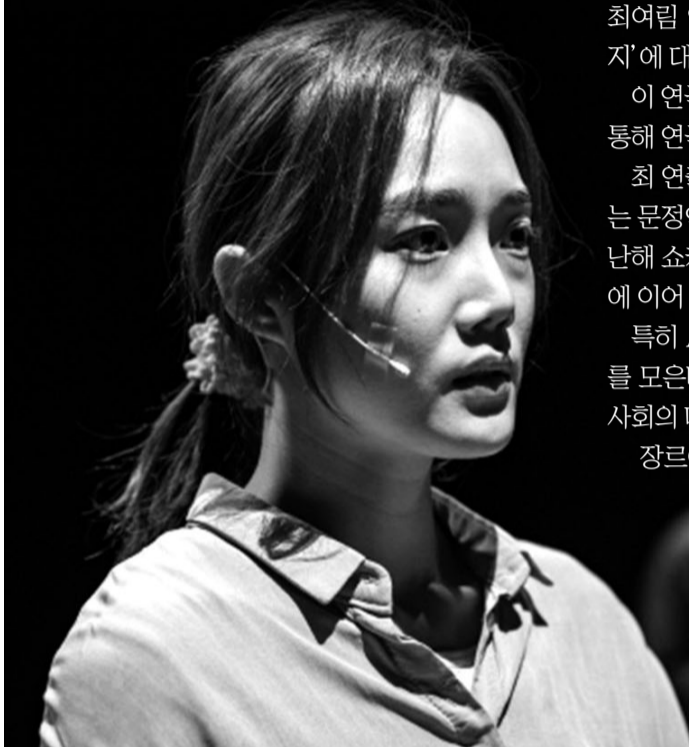
연극은 결국 미래가 아닌 현대사회에서 팽배한  
능력주의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된다.

최 연출은 "능력주의는 일상에 쉽게 접할 수 있  
는 경험이다"며 "도시에서 소외되는 노약자, 임산  
부 등 소수 약자들과의 갈등이 결국 인간의 존엄성  
은 대리될 수 있는 문제인가 고민하게 한다"고 말  
했다.

관람 연령은 13세 이상, 관람료는 전석 2만원이  
다. 예매 관련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(www  
.acc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도선인 기자 sunin.do@jnilbo.com

◀ 7월 12~13일 ACC 예술극장에서 초연하는 '대  
리된 존엄' 한 장면. ACC제공



**클래식 로맨스,  
오페라 '신데렐라'**

광주시립오페라단 정기공연  
26-27일 ACC 예술극장서

광주시립오페라단이 제15회  
정기공연으로 '신데렐라'를 오는 26  
일과 2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
(ACC) 예술극장 극장2에서 선보인  
다. 음악적 아름다움이 더욱 강조된  
콘서트 버전으로 제작됐으며 4세부터  
관람 가능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호  
응이 기대된다.

오페라 '신데렐라'는 19세기 이탈리아 벨칸토(아름답게 노래하는 가창  
법) 오페라의 대표 작곡가 로시니의  
작품이다. 특히 아름다운 선율, 재치  
있는 유머 가득해 인기작으로 꼽힌  
다. 동화 '신데렐라'를 원작으로 한 작  
품은, 이복 언니들의 괴롭힘에 눈물짓  
는 주인공이 아닌 씩씩하고 명랑한 신  
데렐라를 새롭게 그려낸다. 또 새어머  
니 대신 새아버지가 등장해 새로운 재  
미를 더한다. 주로 2막의 한 장면, 신  
데렐라의 아리아 '이젠 슬프지 않아요  
(Non piu mesta)'가 단독으로 자주  
공연되곤 했다.

이번 공연에서 서울시오페라단장  
을 역임한 한국 대표 연출가 이경재가  
연출을 맡았으며, 전남대학교 박인옥

교수(음악학과)가 지휘봉을  
잡아 (사)카메라타전남 오케스  
트라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.

최철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 
은 "이번 공연이 동화 속 마법 같은 순  
간을 재현해 줄 뿐만 아니라, 일상에  
서 잃어버렸던 꿈과 희망을 되찾게 해  
줄 것이다"며 "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 
있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오페라의 경  
험을 선사하겠다"고 말했다.

오페라 '신데렐라' 공연은 오는 26  
일 오후 7시 30분, 27일 오후 3시·7시  
30분 세 차례 예정돼 있다. 예매는 광  
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를  
통해 가능하다. 도선인 기자

## 작은도서관에서 만나는 '미술강좌'

24·25일 광주문화재단  
문화영 예술공간 집 대표

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4일, 25일 오후  
4시부터 6시까지 문화예술작은도서관  
(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)에서 미술을  
주제로 한 강좌를 연다. 동구 장동에 위치  
한 복합문화공간 갤러리 예술공간 집의  
문화영 대표가 강사로 나선다.

먼저 미술강좌 1차시에는 미술을 주제  
로 작품 감상의 즐거움을 알아본다. 이어  
2차시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로 서양  
미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인  
빈센트 반 고흐(1853~1890)와 수많은  
예술가들의 영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 
프랑스 화가 수잔 발라동(1865~1938)의  
삶과 예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.

문화영 대표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출  
신을 비롯해 여러 문화기관과 공공기관에  
서 미술 관련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.  
2017년 갤러리 '예술공간 집'을 개관했으  
며 지역 작가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등 지



문화영 예술공간 집이 오는 24일과 25일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작은도서관에서 미술  
관련 강좌를 연다. 광주문화재단 제공

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 
기울이고 있다.

수강인원은 선착순 15명으로, 지역주  
민(성인) 누구나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  
다. 수강료는 무료이며 수강 희망자는 문  
화예술작은도서관(062-670-7968)으로  
연락하면 된다.

한편 2024년 광주문화예술작은도서관  
강좌 프로그램으로 7월 문화영 관장의 미  
술강좌에 이어 9월 마음놀이터 김옥진 대  
표의 자연관찰일기, 11월 김미환 디지털  
강사의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과 키오  
스크 사용방법 등을 주제로 한 강좌가 이  
어진다. 도선인 기자

## 광주가톨릭박물관 '제2기 술방울 학당'

17일부터 광주대교구청 대건문화관

광주가톨릭박물관은 공식 인문학 강좌  
'제2기 술방울 학당'을 개최한다고 11일  
밝혔다. 인류역사 안에 담긴 다양한 문화  
예술 스토리를 접할 수 있다. 역사, 예술,  
성전 건축, 사회학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  
된 5개 강좌는 오는 17일부터 11월 20일  
까지 광주대교구청 대건문화관에서 진행  
된다.

제1강은 윤선자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

수가 '한기근 신부의 로마·이스라엘 성지  
순례'라는 주제로, 제2강은 조지형 전  
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가 '조선의 천  
주교 박해와 척사유음'이라는 주제로, 제  
3강은 고종희 한양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
가 '바로크의 창시자 카라바조 회화의 빛  
과 혁명'이라는 주제로, 제4강은 김광현  
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가 '하느님  
을 말하는 하느님의 집'이라는 주제로, 마  
지막 제5강은 김영권 광주가톨릭박물관  
장이자 광주대교구 총대리 신부가 '종교

와 사회'라는 주제로 강의한다.  
이번 인문학 강좌에는 교구민뿐만 아니  
라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. 참여  
신청은 전화, 방문,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 
하다.

자세한 내용은 광주가톨릭박물관 홈페이지  
(https://www.gjcmuseum.org  
)에서 교육, 예약하기 페이지에서 확인  
할 수 있다.

한편 광주가톨릭박물관 전시 관람은 오  
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. 미  
리 예약(062-380-2295)하면 전시 해설  
을 들을 수 있다. 일요일과 정기 휴무일은  
휴관. 도선인 기자